

# 스포티지R 40만대 팔려 '베스트 셀링카' 등극

(광주공장 생산)

## 기아차, 지난해 국내외 총 282만대 판매 전체 3.9% 신장 ... 국내시장은 5% 감소

기아자동차가 지난해 국내외에서 전년보다 3.9% 늘어난 282만7321대의 자동차를 판매했다. 광주공장에서 생산되는 스포티지R은 국내외에서 40만7587대가 판매되며 베스트 셀링카로 등극, 기아차 판매 성장의 '일등공신'이 됐다.

2일 기아차에 따르면 지난해 국내 자동차 경기 침체로, 국내시장에서 전년보다 5.0% 감소한 45만8000대를 판매했으나 해외 생산 및 판매에서 내수부진을 만회해 전체 실적은 늘어났다.

기아차는 지난해 해외시장에서 국내생산분 114만50대, 해외생산분 122만9271대 등

총 236만9321대를 팔아, 판매량은 전년보다 5.8% 증가했다. 국내생산분은 2.9% 늘었고 해외생산분은 미국과 중국, 슬로바키아 각 공장의 생산량 확대로 8.7% 증가했다. 글로벌 시장의 경기가 악화됐지만 올 뉴 카렌스와 올 뉴 쏘울 등 신차를 비롯, 모닝, K5, 스포티지R, 쏘렌토R 등이 꾸준한 인기를 끌면서 판매성장세를 이어갔다고 기아차는 설명했다.

광주공장에서 생산되는 스포티지R은 내수 4만5358대, 해외 36만2229대가 각각 판매되며 40만7587대로 판매량 일등을 차지했다. 스포티지R은 2012년 1등을 기록했던

■ 2013년 기아차 베스트 셀링카 순위

순위	차종	국내판매	해외판매	계
1위	스포티지R	45,358	362,229	407,587
2위	프라이드	11,037	369,004	380,041
3위	K3	51,279	326,793	378,072
4위	K5	63,007	264,189	327,196
5위	모닝	93,631	164,680	258,311
6위	쏘렌토 R	29,168	202,026	231,194

(자료:기아차 제공)

프라이드를 제치고 처음으로 베스트 셀링카에 등극했다.

이어 프라이드가 38만41대, K3 37만8072대, K5 32만7196대 등 4개 차종이 30만대 이상 판매됐으며 모닝과 쏘렌토R이 각각 25만8311대, 23만1194대가 판매됐다.

기아차의 국내판매는 모닝, K5, 스포티지R 등 주력 차종들의 선전 속에서도 승용 판매가

27만7539대로 전년보다 8.7%, 레저용차량(RV)은 12만5680대로 0.8% 감소했다. 하지만 국내 시장에서 경차 모닝은 9만3631대가 팔리며 2008년부터 6년째 경차 판매 1위 자리를 지켰고 봉고 트럭은 5만1428대가 판매되며 전년보다 7.3%의 성장세를 보였다.

기아차는 지난해에 이어 올해에도 자동차 경기 침체가 지속할 것으로 예상되지만 올해 초 배기량 2000cc 이상 차량의 개별소비세 소폭 인하됨에 따라 국내 판매 실적 개선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기아차 관계자는 "올해도 세계 자동차산업의 성장세가 둔화되고 글로벌 업체간 경쟁은 더욱 치열해질 것"이라며 "올해 신차 판촉을 강화하는 한편 내수판매 감소분을 해외판매로 만회해 극복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임동률기자 exian@kwangju.co.kr

# 국내 판매 스마트폰 95% '안드로이드'

## 2010년 이후 가장 높아

지난해 국내에서 팔린 스마트폰 가운데 안드로이드 운영체제(OS)를 적용하지 않은 스마트폰은 5%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미국의 시장조사업체 스트래티지애널리틱스(SA)는 지난해 한국 시장에서 안드로이드 스마트폰이 2천490만대 팔려 전체의 94.8%를 차지했다고 2일 발표했다. 이는 안드로이드 스마트폰이 국내 시장에 팔리기 시작한 2010년 이후 가장 높은 비중이다.

안드로이드 스마트폰은 2010년 '데뷔' 첫 해부터 59.1%의 높은 비중을 기록한 뒤 이후 점차 비중이 높아져 2011년 78.4%, 2012년 91.4%를 기록했다.

반면 애플 iOS를 적용한 아이폰 판매 비중은 도입 첫해인 2009년에 28.2%를 기록했으나 점차 낮아져 지난해에는 4.2%에 그쳤다.

그러나 SA의 예측에 따르면 안드로이드 '천하'는 올해부터 다소 균열이 생길 전망이다. 올해 안드로이드 스마트폰의 예상 비중은

92%로 지난해보다 다소 낮아질 전망이다. 이후로도 계속 비중이 떨어져 2018년에는 81.7%까지 떨어질 것으로 SA는 내다봤다.

아이폰은 올해 판매 비중 5%를 회복하고 소폭 성장을 지속해 2018년 6.6%까지 꾸준히 늘어날 것으로 관측했다.

지난해까지의 안드로이드의 강세와 올해부터의 다양한 OS 등장은 세계 시장에서도 마찬가지로 흐름이다.

SA는 지난해 세계 시장에서 팔린 스마트폰 78.3%가 안드로이드 스마트폰으로 사상 최대 비중이라고 평가하면서도, 이 비중이 올해부터 점차 떨어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안드로이드가 줄어든 자리는 MS의 윈도우 OS와 타이젠, 파이어폭스OS가 차지하게 된다.

윈도 폰 OS는 세계 시장에서 점차 비중이 늘어나 2018년에는 10.1%를 차지할 것으로 예상된다. 삼성전자와 인텔이 주도하는 타이젠 OS와 LG전자가 참여한 파이어폭스 OS는 2018년 각각 2.9%와 2.4%까지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연합뉴스



오케스트라 초청 시무식

농협전남지역본부(본부장 박중수)는 2일 지역본부 대강당에서 신년 시무식을 '무안 희망의 오케스트라'를 초청해 꿈의 오케스트라 공연을 갖고 임직원 모두가 농업인과 농촌을 위해 최선을 다한다는 각오를 다졌다. (농협 전남본부 제공)

# 올 유통업계 화두 '해외시장 개척·소통·상생'

## 롯데·이랜드 등 시무식서 강조

올해 초 유통업계의 경영화두는 크게 '해외시장 개척·소통·상생'이다.

2일 유통업계에 따르면 신격호 롯데그룹 총괄회장은 이날 신년사를 내고 "자녀는 내수침체와 불확실한 해외경제 상황으로 모두에게 쉽지 않았던 해였다"며 "그러나 올해에는 해외시장을 계속 확장, 안정성 있는 성장을 해달라"고 주문했다. 그는 이와 함

께 기존 사업을 내실화하고 치밀한 준비를 해서 장기 성장전략을 모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신 총괄회장은 변화가 가장 빨리 진행되는 현장에서 해답을 찾고 소비자의 요구를 면밀히 파악하고 통찰, 시장기회를 선점하며 해외사업과 관련해서 기존에 진출한 지역의 경영을 안정화하고 동반자와 미주 진출도 꾸준히 모색해달라고 당부했다.

신 총괄회장은 해외 진출, 소통, 동반성장

을 잡으면 말미 해 경영전략으로 내세운 것이다.

화장품업계 시장점유율 1위인 아모레퍼시픽은 경영방침을 '상생'으로 정했다. 내외부 환경에 적극 대응해 회사의 비전인 '원대한 기업'(Great Global Brand Company)에 한 걸음 더 다가서겠다는 계획이다.

서경배 회장은 시무식에서 "올해는 우리의 비전인 '원대한 기업'의 초석을 다지는

한 해가 될 것"이라며 "시장과 고객의 변화에 적극 대응해 2020년까지 5대 글로벌 챔피언 브랜드 육성, 글로벌 사업 비중 50% 달성, 질적 성장을 실현하자"고 주문했다.

이랜드그룹도 고객과의 소통을 강조했다.

박성수 이랜드그룹 회장은 이날 "고객에 맞춰 내 자신을 탈바꿈해야 살아남을 수 있는 시대다"고 말했다.

박 회장은 이날 신년사에서 "회사는 조직, 일하는 방법, 사고 전체, 성공 방법까지 다 버리고 새롭게 고객이 요구하는 방식으로 바뀌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연합뉴스

# 7월부터 자동차 타이어 결함도 리콜

## 타이어 강도 기준 신설도

올해 7월부터는 자동차 타이어에 결함이 발견되면 제작사가 리콜해야 한다.

국토교통부는 자동차 타이어 파열로 인한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타이어 제작기준을 국제기준 수준으로 강화하고 타이어 결함이 발견되면 리콜하도록 자동차안전기준에 관한 규칙을 개정해 2일 공포했다.

국토부는 이번에 승용차, 승합차, 화물차 등 종류별로 세부 성능기준을 마련했다.

타이어 트레드(타이어가 노면과 접촉하는 부분)를 비롯해 주황 중 비드(타이어와 림의 접촉 부분) 이탈 등 강도 기준을 신설했다.

장시간 주행하거나 고속으로 주행할 때

타이어가 견뎌야 하는 기준도 포함했다.

이밖에 트레드 마모지시 등 표기, 구조 관련 기준도 추가했다. 국토부는 이번 개정 규칙이 7월에 시행되면 교통사고 예방에 큰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도로교통공단 단의 최근 5년간 자료에 따르면 타이어 파열 사고는 특히 고속도로에서 치명적이며 일반 교통사고와 비교해 사고 발생건수 대비 사망자 수 비율이 최대 8배가량 높다.

2012년에는 타이어 불량 교통사고 140건이 일어나 24명이 죽고 295명이 다쳤다. 미국과 중국 등 외국에서는 타이어 불량 리콜 사태도 종종 있었으나 국내에서는 타이어 안전기준이 미비해 결함조사조차 이뤄진 적 이 없다. /연합뉴스

# 지난해 온라인 쇼핑 거래 50조 돌파

## 전년도보다 14.6% 증가

지난해 온라인 쇼핑의 거래규모가 50조원을 처음으로 넘어섰다.

2일 유통업계에 따르면 작년 온라인 쇼핑 거래액은 55조원으로 2012년의 48조원에 비해 14.6% 증가했다. 백화점, 대형마트 등 오프라인 매장의 매출이 오랜 경기불황과 영업규제 탓에 감소한 점을 고려하면 온라인의 성장세는 괄목할 만하다.

온라인 쇼핑거래 규모는 2007년 27조원, 2010년 34조원 등으로 매년 커지고 있다.

올해에는 65조원까지 늘어날 것으로 업

계는 전망하고 있다.

모바일 쇼핑 거래액은 순방문자 급증 영향으로 2011년 6천억원에서 올해에는 무려 10조원으로 성장할 전망이다. 순방문자는 웹 사이트의 개인 방문자를 말한다.

금년 인터넷쇼핑몰에서는 모바일몰과 오픈마켓 거래가 모두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온라인 쇼핑 내에서 모바일 거래액의 비중은 2011년 1%에서 2014년 15%로 14%포인트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반면 인터넷 비중은 80%에서 69%로, TV홈쇼핑 비중은 16%에서 15%로 낮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연합뉴스

한해동안 보내주신 관심과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2014년 새해에도 최선을 다해 고객님을 섬기는  
금수장 관광호텔 아리랑 하우스가 되겠습니다.

**내 집 같은 편안함!**

고객님의 여행과 휴식을 한 차원 높은 수준으로 업그레이드 하여 드릴것입니다.

- 부담없습니다!  
● 5~6만원대 중저가 비즈니스 호텔
- 편안합니다!  
● 한밤 한밤 직접 레메이 정성껏 준비하는 깨끗한 침구
- 갖고 여행객, 비즈니스 출장객에게 더욱 좋습니다.
- 편리합니다!  
● 광주역에서 도보 7분, 광주고속터미널차편 15분거리
- 전남대, 조선대, 교대, 아시아문화전당(구도청), 예술의 거리, 충정로 등 시내 주요 거점이 10거리
- 홈플러스,이마트, 롯데백화점, 현대백화점이 인접
- 전 객실Free Wifi, 비즈니스센터, 한식당, 커피숍, 와인바, 연회장 등, 다양한 부대시설

정성을 다해 고객 여러분을 모시겠습니다.

건강한 우리음식 한정식으로 만남의 기쁨을 더 하십시오!

2014년 신년회 떡국식사 예약 접수중!

30년 전통의 한정식

— since 1981 1등 맛집 연속 선정  
— 32년을 고객과 함께 지켜온 광주의 대표 맛집

Coffee & Wine 카페 보네르 OPEN

금수장관광호텔 아리랑하우스 예약문의 (062)525-2111 계림동 홈플러스 건너편

부담없는 가격의 내 집 처럼 편안한 객실! 30년 전통 광주음식명가 한정식 아리랑하우스! 각종 모임을 위한 대소 연회장! 세미나를 위한 영상, 음향시설! 광주 와인 문화1번지 모리나리! 맞춤형 출장도시락